

이 뭐꼬 ?

李 門 浩

(全北大 情報通信工學科)

지난 정월초 순천 송광사에 2박3일의 수련회를 다녀왔다. 몇 년 전에 카톨릭에서 세례도 받았지만 최근 1~2년에는 성당에 발길을 끊고 있는 터라 늘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쉴 수 있는 안식처를 못 찾는 상태에서 신년을 맞아 자신과 주위를 돌아보고 싶어서였다. 12월 한 달을 일본 동경대 생산기술연구소에서 방문연구교수를 마치고 오자마자 떠나는 길이라 몸도 마음도 피곤한 상태였지만 송광사의 교사수련회는 山寺의 공기처럼 상쾌한 것이었다. 저녁식사 시간부터 수련회가 시작됐는데 식사는 바루공양이었고 문제는 설거지였다. 옆사람이 김치 한 조각으로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의 바루를 씻어내는 것을 보고 그렇게까지는 했는데, 나중에는 그 김치 한 조각과 곡물 찌꺼기까지 전부 먹는 것을 몰랐다. 나는 그것을 모르고 김치조각과 곡기의 찌꺼기를 수채통에 버렸다. 그것을 본 지도법사의 호된 꾸지람이 김치조각을 먹으란다. 옆에 있던 분이 처음 와서 잘 몰라서 그렇다고 변명해서 겨우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잘못된 줄 알면서도 김치조각을 몰래 쪽지에 싸서 버렸다. 처음에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 김치에 고추가루 한 알, 된장국의 콩가루 한 알도 두가 제 소임을 다하고 돌아가는데 우리가 몰라서 무심코 버린 것이다. 채소나 고추, 콩만 보더라도 씨앗이 땅에 뿌려져 자라서 삶을 다할 때까지 자신보다는 이웃인 인간을 위해 온몸을 바치는데 우리가 그 진솔한 삶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찮게 보고나 있지 않은가. 식사 시간이 끝나자 예불과 강의, 묵언, 철야 좌선 108 배 참회로 이어졌다. 평소 알 것 같으면서 잘 모르는 것이 부처님의 진리다. 2천5백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서는 인도 마갈타국 보리수나무 밑에서 등녘의 떠오르는 샛별을 보시고 진리를 깨달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부처님이 되었는데 부처님은 6년 동안 수행정진하여 마침내 우주생명의 실상을 사무쳐 깨달았다. 깨달은 내용은緣起法이다. 즉,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멀하면 저것이 멀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기주의에 의한 자기집착과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연기법의 진리에 어긋난다. 우리 인간은 同體大悲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탐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은 생각으로 사는 것은 진리를 등지는 것이다.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경제발전과 산업발전을 시켰지만 오늘날 산업발전으로 인하여 산업폐기물이 배출되어 대기가 오염되고 수질이 오염되고 토양이 산성화되어 가고 있다. 환경오염과 파괴로 인한 인간생명이 위협당하는 심각한 현실에 놓여 있는데 환경을 보전하고 공해를 추방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1백년 내에 생태계와 인간이 함께 죽는 비극이 올 것으로 환경연구자들은 말하고 있다. 환경오염은 인간만이 행복하게 살려는 이기심 때문에 일어난 결과다. 자연이 보존됨으로써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면 자연이 잘 보존되어야 한다는 공존공생의 생명질서를 지켜야 한다. 연기법의 논리는 인간과 인간,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간, 민족과 민족간,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공생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진리이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착각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번뇌망상과 자기 집착과 애착을 버리고 부처님처럼 진리를 깨쳐야 한다. 그리고 있

는 사람은 이웃을 위하여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양보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自利利他다. 나도 이롭고 이웃 사람도 이롭게 살자는 것이 아닌가. 내 이웃을 잘되게 해 주십시오! 山寺에 묻혀 마음공부를 하는 高僧과 외국의 유명 대학에서 글공부만을 한 교수의 세계는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같은 것일까. 성철 스님은 세상살이는 10원짜리라고 했다던가. 결국은 話頭, “이 뭐꼬?”이다. 이 몸뚱이 주인공은 누구이며 ‘나’란 무엇인가. 온갖 욕심과 허구로 가득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한 것이 철야 좌선이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 졸릴 때마다 지도법사 스님으로 죽비를 등허리에 맞으면서 “이 뭐꼬”를 밤새 하지만 결국 얻은 것은 10원짜리인 욕심 덩어리가 이렇게 많이 있구나 하는 정도이다. 한마디로 세상살이의 業을 버릴 수가 없었다.

외국저널의 논문 발표에 매달리고 연구비에 매달리는 저 간사한 마음. 그렇다고 해서 노벨상을 받을 것도 아닌데 말이다. 24시간 默言을 실시해 이웃 사람과 외부와 정보차단을 시켰다. 귀로 듣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낄 수 있게만 하고 말을 못하게 하여 정보 발신력을 못 갖게 했다. 귀가 들인 것은 많이 들되, 반면에 적게 말하라고 해서 입이 하나인가. 말을 못하게 하니 처음에는 답답하게 느꼈지만 나중에는 내면적으로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아냈다. 귀로 듣고 귀로 말할 수는 없을까. 송광사 경내는 스산한 겨울 저녁 어둠과 四物의 소리가 울려나오고 있을 뿐이다. 그 四物의 울림은 예사롭지 않은 것이며 삼라만상의 소리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佛家에서는 이 四物을 꼽는다고 한다. 이른바 법고, 범종, 목어, 운판이 그것이다. 웬만큼 큰 사찰에는 대부분 입구 가까이에 위치한 누각에 사물의 악기가 걸려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관심을 끄는 것은 이 악기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소리의 상징성이다.

陸·海·空과 地下의 못 중생들을 소리공양으로 구출한다는 의미가 담긴 이면에는 이 악기들의 재료 출처와 형상이 무관하지 않게 맞물려 있다. 즉, 짐승의 가죽을 사용하여 만든 법고는 물의 중생을, 땅 속에서 캐낸 쇠로 만든 범종은 지하중생을, 구름 모양의 운판은 하늘을, 그리고 물고기 모양의 목어는 바다를 대표한다고 믿는 소리의 상징체계가 바로 그러하다. 그런데 四物 가운데 특히 木魚는 그 형상의 상징성은 물론 악기구성의 재료나 타법의 면에서 각별한 관심을 끌리게 한다. 바다를 그 사상의 중심배경으로 삼는 佛家の 입장에서 볼 때, 물고기 형상을 내세우는 것은 결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닐 것이다(불교 성악을 대표하는 범패의 경우도 魚山이라는 별칭이 쓰인다). 다만 목어는 그 악기로서 구성되는 재료(몸체 및 채)가 순전히 나무여서 음색 또한 철저히 목질의 성격을 띠고 있고, 타법의 면에서도 몸체의 바깥을 쳐서 소리를 얻어내는 다른 악기에 비해 내부를 치도록 구조화된 점이 특징으로 자리한다. 그러면서 바다의 인연을 대표하는 물고기로서 그 소리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신비롭고 불가해적 상징체계에 대한 인식이, 어쩌면 緣木求魚라는 성어를 낳게 한 고사에도 영향을 끼쳤음직한 일이다. 겨울 나무가 앙상한 산골짜기를 울리며 들려오는 山寺의 四物의 소리가 默言을 하니까 더욱 그 의미가 또렷해진다. 못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저 소리. 이 신비로운 소리의 의미를 속세에 찌든 세인이 어찌 깨치기가 쉽거나 하랴만 영점의 시간을 타고 흐르는 소리 속에 귀를 달고 입을 달 수는 없을까. 전주 집에 귀가해서 내의를 벗어보니까, 목욕탕에서 약간 화상을 입었던 왼쪽 팔꿈치가 완전히 피부성이가 되어 있었다. 아침 4시 108배 참회시 아픈줄도 모르고 절을 했나 보다. 목을 축이고, TV를 켜니 전북대 29개 학과 214명 추가 모집방송이 나오고 있다. 원서접수마감날 오후 4시 일시에 삼, 사천 명이 몰려 서로가 입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잘되려고 눈치를 편 사람들이 소위 낮은 학과로 몰렸고, 높은 학과는 텅 빈 상태가 벌어진 것이다. 그 결과 자기 욕심을 부린 사람들은 떨어져 고 소신지원한 사람은 붙은 것이다. 세상살이가 “이 뭐꼬?”이다. ▣